

12단계 성경공부 2단계 중강파티



11월 19일 수요일에 후 2단계 성경공부 강의 후 중강파티를 가지고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참석한 교우들은 방학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3단계 성경공부는 2009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39기 자원봉사자 수료식



지난 11월13일(목) 교우 8명이 무지개 호스피스 39기 호스피스 교육 수료를 했다.

9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0주간에 걸쳐 호스피스의 섬김과 이해, 말기암환자

교회소식

에 대한 신체적 돌봄과 영적 돌봄 사회적 돌봄 등 배웠다.

수료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삶을 본받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됨을 감사드리며 섬김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권사회



11월 권사 월례회가 11월 18일(화)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열렸다.

2009년 2월 22일 주일부로 진행되는 목적을 이끄는 40일 캠페인 권사 모임으로 열렸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주님의교회 권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전도의 어머니가 되고 없는 사람

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변할 소그룹 중심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당부와 말씀이 있었다. 모인 권사들은 나라와 정치지도자, 교회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후 안양에 있는 농심 공장을 견학하며 친목을 다졌다.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먼저



환경사역팀은 11월 8일(토)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자연

환경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마음을 현장에서 체험도 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교회에서 환경에 대한 토의를 계속 하였지만 현장에서 보는 자연 훼손은 보기보다 심각 하였다. 자연훼손을 교회가 앞장서 막아보며 그 혜택도 누리보자는 취

지로 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연에 대해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했다

제1남선교회소식



11월15일 (토) 25명의 회우가 참석하여 가을나들이를 하였다.

나들이 중 형성 풍수원성당을 방문하였다. 이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자 한국에서 네번째로 지어진 유서깊은 성당으로 험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모처럼 나들이에 예쁜 단풍도 즐기며 귀경길에는 형성담도 관람하며 제1남선교회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기회였으며 송승엽회장은 교우들이 남선교회 행사에 적극참여를 바랬다.

추수감사절 풍경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게 하옵소서 주님 열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넉넉한 마음 닮게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진) 추수감사 기념 떡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성도들



사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미술인 선교회에서는 기념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사진). 추수감사주일 예배 특송으로 2부예배 유아부에서 교운 한복을 입고 찬양을 드리고있다.



사진) 어려운 요즘이지만 성도들과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목양부에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축제분위기로 꾸몄다.



사진) 순수한 세쌍둥이의 추수감사 특송 (3부 예배)

[오늘의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 3:13

통 권 제 240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1월 23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나눔의 미덕이 존재하는 공동체

풍족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늘 채워주십니다



로 템 나무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밍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눅8:5-8)

농부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을까.

백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일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땅에 있지 않을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다.

농부는 모든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주신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더 간절하고 안타깝다.

더욱 더 뜨거운 가슴으로 품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시면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상황이 어려울때도 감사할 줄 아는것이 그리스도의 근본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설교중



지난 주일(11월 16일)은 추수감사예배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하늘의 은혜, 풍성한 감사>를 주제로 1부부터 4부까지 공동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꽃단장을 한 어린이를 통해 말씀을 봉독했다.

예배를 열면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최근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경제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또한 목사님은 “IMF같이 어렵다고 여러분

하태원 집사

살나눔 행사 집계
기 간: 2008년 11월 9일 ~ 11월 16일 (2주간)
접 수: 현물(쌀) 380 kg 현 금: (13,547,000원) 6,260 kg
합 계: (332포/20kg) 6,640 kg
배송처: 거리의천사들 등 불우이웃과 복지시설 19개 기관 (42개처)

* 현금 접수분은 농어촌 협력교회를 돕기 위한 농산물직거래 장터에서 구매하여 나눕니다. (함평 쌀)

주최: 주님의교회 20주년기념사업회 후원: 기아대책

주님의교회 20주년 CCM CONCERT

크리스마스선물

2008.12.16(화) 7:30(pm)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출연진: July(함춘호/이세준), 남궁송옥, 황정자/박상민(국악), Soul Singers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신앙교육	3면
교회소식	4면
추수감사절 풍경	4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이유”

누가복음 14:28-32

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귀한 시간과 노력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투자함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립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구원 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십시오. 바라기는 추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성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추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우선 순위를 알고 바르게 살 때 우리 자신이 존귀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다음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두 번째는 성급함이라는 감정을 다스려야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9: 11 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 하느니라." 20: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영광과 비교하는 것은 이는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까? 무엇보다 분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고 분노로 다스리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분노보다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만 그 분노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급함을 다스리는 지혜

다음으로 두 번째 감정의 문제는 성급함의 문제입니다. 성급함 역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할 일입니다. 구약에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 중에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다라는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나온 사람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영접했고 그 딸은 무남 독녀였습니다. 결국 임다는 성급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게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잠언에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성급함으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영적인 성장에 크게 해를 끼칩니다. 이를 다스릴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가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추수 감사절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은 지내면서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가 결코 성급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고 비가 올 때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 더욱 성실함의 모습을 다짐하게 됩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재물이 영적인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재물에 대해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으면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굴의 지혜

잠언 30장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굴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과 물질이 깊이 관계되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았습니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에 대해서 기도해야함을 알았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넘어지게도 합니다. 종종 신앙 생활은 무조건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잘못입니다. 아굴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있지 신앙이 물질을 위해서 있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갖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 갖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구체적으로 모습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우선권이 분명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소망도 함께 드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감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최근 청소년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과 성적과 진로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청소년 연구기관의 최신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육연구소가 교회 청소년 1500명 설문) 교회 청소년들의 고민 중 1위는 학업과 성적(49.2%), 2위는 진로(22.9%)문제로 많은 부분이 성적과 진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초등생까지도) 입시라는 좁은 문 앞에서 청소년시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나 부모님과 대화나 친구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해 200명의 청소년자살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식위주의 세상교육에 허덕이면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삶은 신앙적인 삶과 괴리는 얼마쯤 됩니까?

최근에 청소년들의 주일예배나 신앙교육 활동에 있어서 참여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학교의 위기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앙의 대 잇기'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학원이나 공부나 시험 때문인가 50%를 넘어서고 이에 따라 주일 아침에 잠을 깨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청소년의 삶은 가정과 교회현장이 배제되고 지식의 성장이 주를 이루도록 조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신앙의 성장을 위한 교회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세 가지 큰 파도가 일고 있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세 가지 파도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파도와 교회교육의 속도가 따라갈 수 없어보이는 밀

티미디어 커뮤니티케이션의 빠르고 변화무쌍한 파도와 열풍과 함께 물려온 입시,사교육의 파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시사교육의 파도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등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파도 앞에서 가정의 부모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듯한 위기를 가집니다.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속에 살아가면서 교역자나 교회교사들에게 상담하거나 기도를 요청하는 빈도는 2.5% 정도로 아주 낮은것도 교회교육의 적신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시기의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영적 무기력 상황을 교회들이 맞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선순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주님 닮는 삶과 지금도 우리와 역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것임을 교회가 분명히 잡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회가 비전을 품고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인 이 입시와 학업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안적 방법은 도출되었습니까?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여 교회교육이 등한시되고 교회교육의 분명한 비전이 힘을 잃는 어려움이 있고 부모들도 자녀교육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속적 경쟁주의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신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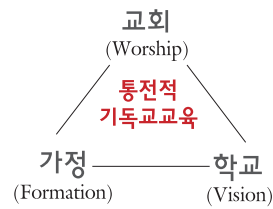
은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끝낸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것은 누구 탓인가?' 말도 못하고 답답해 하며 속앓이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시험에멍이 들어야 하는가. 대학은 무엇이며 과연 이 시대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담당자 박혜성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진단에 따라 가정과 교회의 연계방안 (교회의 부모교육,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부모자녀 교육상담, 여러 가지 가족모임을 통한 기독교교육 계획..)과 교회와 학교의 연계방안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목표확립,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적 진로세미나, 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네트워크 연결, 교회와 기독교학교와의 만남..),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방안(기독학부모 교실 개설, 사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확립등..)등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로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출되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 할 생각인가요?

2009년도를 통하여는 실현이 가능한 내용부터 준비하고 하나하나 실현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지치고 힘든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안식과 영적 충전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환경과 교육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자녀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목상들을 손에 들려주어 바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기억하도록 '청소년 말씀목상집'을 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부모들의 손에도 자녀들을 향한 신앙양육서를 개발하여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행하도록 하나하나 교회교육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입장에서 주일에 예배참석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타당한 방법 인가요?

"주일 아침, 당신의 자녀는 어디

에 있습니까?" 자녀를 학원에 내려놓고 부모만 교회에 오는 상황들이 주일아침 예배 시간에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는 듯도 합니다.

“자녀교육의 성공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이 부모님들에게 다시 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시대가 아무리 지식위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이라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세를 다시 새롭게 가져야 할 영적인 기회의 시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 진 자들로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잇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성수주일과 예배의 중요성, 대를 이은 신앙의 계보있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영적교육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일은 지켜져야 하고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결론 :쉽게 하나의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과제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학교이고 학교가 교회와 가정인 통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가운데 영적 회복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박혜성 목사

